

2016년 12월 7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  
 김춘옥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**[제보자]** 응 우리 종달리 마을 사람인디 도깨비 잇인 집인디 이젠이 그 집이 딸이 삼형젠디 사위가 있는데, 이 헛 곡식이 나면은 이제이 도체비 구신한테 바쳐야 댜여, 우리 종달리 본향당 돌 잇어. 게난이 범벅을 헤가지고 대충 수수 조밭 안에 수수를 갈아놔어. 거문 헛거당 그걸 장만헤가지고 수수범벅을 헤가지고 그 도체비 구신나시 바찌는 거라이. 겐디 바찌레 가젠 헛디 두 번째 사위가 딱 나타나서 보난 ‘아 요거 우리 장모님이 도체비 구신헤네 이거 바찌레 값구나.’ 헛디, 우장이 우장 입고 헛 비오는 날인데, 딱 앓안 고냥 영 앓아가지고 딱 헛 왓이난 생전 그런 것이 었는데 그 사름은이 딱 앓안.

“야.”

“영 헤네 세곡식 헛 정성헛 앓안 왓우다.”

“어 그레 놔두고 가라.”

영 헛 불었어게. 거난이 겁나네 그이 그 범벅 헛 간 사름은 겁나고 그 낭푼채 던져동 그냥 온 거라. 사위가 진짜로 사위가, 겐 이제이, 장난헌 거. 사위가 그 범벅을 실컨 먹고이 이 경 헤난 쫘 잇이난이 혼 멧 돌을 멧 돌을 걸렸어이. 멧 돌을 걸런 이제 헛는데. 이제 그 딸이 가보니깐 아, 그 저 가시어멍네 집에 푼네 집을 그 가시어멍이 갖거든. 강 보난 자기네 그 낭푼이 잇는 거라. 이 낭푼 잇이난이.

“아 요놈이 사위가 절대 구신이 나왕 애길 아니 들어 뵈는디 이거 응 사람이 사위가 들영 그 지랄헛수다.”

헤네이, 막 원수땡어 원수, 원수 댄 죽었어. 장모허곡 사위가 원수땡 불었어. 사위는 장난끼 잇는 사람이니깐.

“아 우리 장모 헛 값구나 나가 강 복창 먹어줘야지.”

복짱 먹어뵈주게. 언덕진 데 그 고망 난 돌 잇어. 그 관광 오민 구경 혼 번 헛 일 거라. 동굴 아래 도깨비 구신 모시는 디가 잇엇던 모양이라. 구신 모시는 집에.

- 핵심어 : 종달리, 도깨비, 장모, 사위, 수수범벅, 구신, 구좌읍 종달리